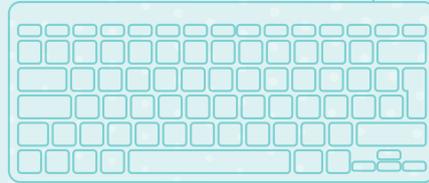


KIHA NEWS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 신사옥 '첫 삽' 14일 기공식, 2023년 말 완공 목표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가 신사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협회는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신사옥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내부 행사로 진행된 기공식에는 백헌기 회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과 지역본부·센터 기관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및 상집·운영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관과 최경천 충청북도 도의원도 기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대지 면적 7,000㎡(연면적 11,29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는 오송 사옥에는 일반업무시설과 함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교육시설)이 같이 들어서게 되며 2023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협회 본부는 2023년 말에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충북 오송 신사옥으로 옮겨 가게 된다.

백헌기 회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옥으로 설계했다"며 "우리나라 산업 보건의 '랜드마크'이자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 10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방문 산재 예방 주도적 역할 당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를 방문해 백헌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환담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산업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보건협회와 같은 전문기관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협회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수립에서부터 이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헌기 회장은 “협회는 지난 60년간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재 예방에 중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김철희 산업보건정책관·황규석 사무관이, 협회에서는 이영중 경영본부장·이강찬 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다운복지관 ‘무료 이동 건강검진’ 시행

10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는 공릉동에 위치한 다운복지관에서 다운증후군 환우(이하 다운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다운인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등으로 이뤄졌다. 협회의 무료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의 기본 건강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응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협회의 가치 실현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강미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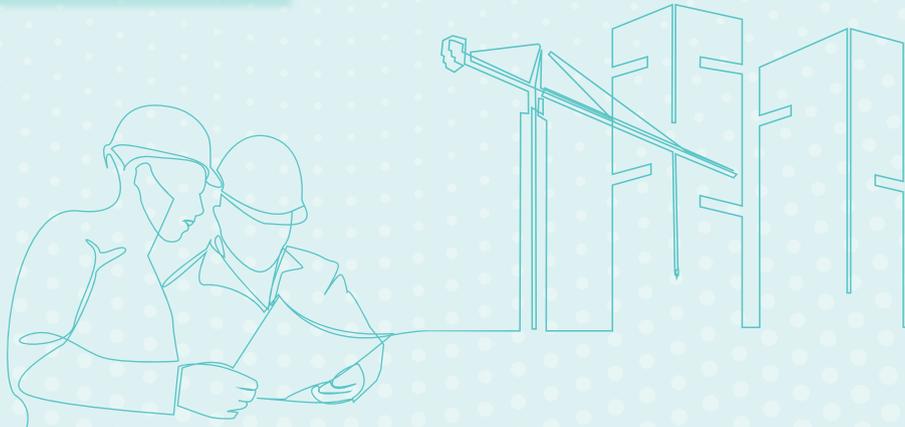
한마음혈액원 군포 신사옥 개원식 '성황'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이하 혈액원)은 16일 군포시 당정동에서 신사옥 개원식을 진행했다. 혈액원은 더욱 정확한 혈액분석과 혈액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로슈진단의 핵산증폭 등 장비를 연결한 최첨단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군포 사옥을 새롭게 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임영애 위원장,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한마음혈액원이 혈액공급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은 “보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혈액수급이 매우 어려운 만큼 헌혈에 많은 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내기자단 워크숍 개최 '함께 키우는 홍보의 꿈'

협회는 18일 충북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내기자단의 취재 역량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사내기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사내 기자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워크숍은 협회 정책방향 소개와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2022년 정책과제' 소개와 더불어 사내기자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사내 기자들은 연운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의 강의를 통해 '취재 및 기사 작성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이론에 더해 기사 작성 실습을 진행했다. 참석자 소통의 시간에 이어 이상태 경영총괄이사의 총평으로 워크숍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인천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시민안전감독관' 위촉



연이은 산재 발생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천시는 시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2일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사업장을 점검하는 '인천시 시민안전감독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첫 번째 현장점검 강화사업이다.

시민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과 관련된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천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 사항의 신고, 공공 공사현장 지도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인천센터 최수현 센터장과 환경위생 김종성 팀장이 함께한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 예방조치 ▲적정인력 배치 여부 등 기본수칙을 점검하면서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물류차량 안전 및 물류수송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주)한국스마트탑 업무협약 체결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주)한국스마트탑과 3월 25일(금) 11시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물류차량 안전 및 물류수송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경기 남양주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위해 저장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택배 기사들이

허리를 굽힌 채 물건을 싣고 내릴 수밖에 없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택배노조와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정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주)한국스마트탑과 공동으로 '탑차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주)한국스마트탑에서 탑차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승형 탑차가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을 얼마나 완화하는지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와 함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과 (주)한국스마트탑은 ▶물류차량 안전 확보 및 자동화를 위한 공동개발 업무 ▶물류수송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등 물류차량 안전 및 물류수송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